

## 돈보다 사람이 소중한 사회

박천웅(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목사)

지난 1988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5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차별의 상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시급하다. '사람' 보다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국경 없는 이주는 국제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노동의 이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나라를 떠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보호 수단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끝없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돈'이 지배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인간'이 소외되어 밀리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물결이 지속될 21세기의 '국경 없는 시대'를 맞아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실천적 시도와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현장과 인권 실태

#### 1) 노동현장의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현장의 실태를 알려면 노동현장의 환경과 공장 내에서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으로부터 먼저 배우는 말이 '개새끼' '빨리 빨리' 라면, 한국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은 '머리 땡땡'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국인노



동자들은 소위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영어의 첫 글자)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주로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한 빈번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이다. 특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잦은 임금체불과 산재보상에 대한 시비, 기업 도산의 항상적 불안이 존재하여 일을 하여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쉬는 날이라도 특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압박에 일요일에도 특근을 해야 하고 심지어 명절이 되어도 한국 사람은 다 고향에 내려가도 외국인 노동자들만 공장에 남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인식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인권 차별의 사례

지난 2월13일 루미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모 중소기업 공장에서 1년 동안 혼자서 4개의 기계를 맡아 관리해 오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하루 종일 공장을 뛰어다니다 퇴근을 하면 언제나 피곤에 지쳐 잠자는 것이 대부분 그의 일과였다. 그러던 2월 초 오른쪽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자 사장의 안내를 받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월 11일(일) 사장이 찾아와 “피병 그만 부리고 이제 일어나 일해!” 라고 하자 루미는 “사장님 아직 몸이 아파요, 일 하기 힘들어요.” 했다. 이때 사장은 루미를 회사로 잠깐 가져다 갔더니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더니 속이 찬 PVC 파이프를 루미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회사 일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장에게 머리 등을 구타당한 루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도망하여 인근의 한국인 집으로 피신하여 “한국 사람이 마구 때려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였다. 한국인의 도움으로 루미는 다행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루미를 경찰이 오후 1시경 시흥 경찰서 형사과로 데려가 밤 9시가 되어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형사 반장은 “이 사람은 불법체류자니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나갈 수

가 없다.”고 하였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루미는 비록 불법체류자였으나 몸이 허약해 질 정도로 밤낮을 가지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였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피해자인데 ‘강제출국’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추방되는 위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억울함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신분적으로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욕을 듣는 것은 예사이고, 구타, 성폭력 등이 자주 노출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인에게 이의를 잘못 제기하였다가는 공장에서 쫓겨나가거나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안산의 모 공장에서 작업도중 공장장으로 부터 구타당한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가 강제 출국 당한 일이 벌어졌다. 억울하게 공장장으로 부터 맞은 소식을 들은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항의하러 공장장을 찾아갔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공장장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 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사고가 일어난 공장주변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1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 출국 당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자신이 참든지 공장을 떠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수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한국인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면 공장을 떠나야 하고 결국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빈번하다. 추방당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 대우를 참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 대하여 늘 분노로 가득 차있다.

## 2. 아시아에서 국제 이주노동과 노동 이동의 통제

### 1)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생존과 생산을 위한 노동이동의 역사였으며, 이러한 이동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노동이동이 시작된 것은 5세기 이후 중국인과 인도인의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이동은 아시아 지역이 유럽 열강들에 의하여 식민지화를 겪으면서 규모가 커져 갔고, 19세기 이후에 아시아에서의 노동은 더욱 활발해져 갔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자 해외 이주 아시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내의 이주 노동은 점차 감소 되어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후 복구가 이루어진 유럽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노동 송출이 활발해져갔다. 특히 1960년-70년대 초에는 서유럽으로의 이주가, 1970년대 이후에는 중동으로 대규모의 노동 송출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아시아 지역내 노동이동의 증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나라별 경제 발전의 차이, 일본과 아시아 신흥 공업국가들의 대 아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의 증가, 중국과 베트남 등의 개방화 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내 많은 국가들의 출입국 정책 완화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 2) 이주노동의 정책과 통제

노동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 국가의 독립으로 민족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경'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노동의 이동이 통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노동이동을 위한 국가 관계가 주로 식민제국의 침투로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자본의 직접 투자, 무역의 증가, 해외 여행객의 증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은 상품, 자본, 기술, 정보 및 사람의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국가 간 노동이동의 유형을 보면 정치적 망명과 난민이동, 영주이민과 일시적 노동 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자나라에서는 자본과 무역의 자유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가난한 나라의 노동이동은 출입국 관련법을 통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주도의 세계 경제체제가 198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일본의 삼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주권(NAFTA), 유럽권(EU), 아시아 태평양 지역권(APEC)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인 노동의 이동을 지역화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화는 강대국간의 충돌을 피하면서 강대국들이 각자 지역내의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노동이

동의 통제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국제 정책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중에서 단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 이동의 통제 정책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유입하되,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방정책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이 취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혹은 취업허가제(노동허가제)의 방식을 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유입하지는 않으면서, 해외 동포의 활용과 연수생이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단순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일본과 한국같은 소극적인 폐쇄정책이 있다. 어떤 형태의 이주노동 정책이든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이주 노동을 차단하려는 통제정책이다.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하여 부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부자 나라에서는 자본과 상품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되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정책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이다.

### 3. 생존권으로서의 이주 노동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 경제 편중은 세계인구 60억 가운데 절반인 30억의 사람을 실직, 이주 노동자로 몰아아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이주노동은 단순한 노동 이동이 아니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1948년 브레튼우즈에서 강대국들이 모여 1달러에 금 35온스를 고정 환율제로 정하고 달러를 국제교환 화폐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고정 환율제가 무너지면서 '돈' 자체가 본격적인 국제투기 자본으로 형성되었고, 돈 자체가 매력적인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를 가리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출발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세계화는 땅을 구입하고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는 자본투자를 통한 이윤증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실직자와 이주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제한된 일자리를 가진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고 살길이 막연하여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로 말미암아 상위 부자 20%의 사람이 세계 부의 84.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20%의 사람은 세계 부의 고작 1.4%를 소유하는 20/80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점차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지구화 시대에 하루 생활비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구의 절반인 30억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전 세계 노동인구의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발표하였듯이 세계는 '돈'이 중요시되고 '사람'은 소외되는 경제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이주 노동은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노동 유입국에서는 노동이동에 대한 통제와 조절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조절의 수를 넘는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법체류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는 오늘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은 생존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문제 역시 생존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4.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우리의 시장 경제는 상품과 자본을 통한 최대 이윤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돈은 이윤을 보장하는 권력을 형성(이익의 보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통제수단(법, 군대, 경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윤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장 확대를 통해 문화를 조작해 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의 땅에서 차별적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의 '정다운 이웃'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차별적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제도적 측면, 인식적 측면, 대안적 공동체 형성 등의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지'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대체입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람'보다는 '돈'을 중심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가난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현장에서부터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한 차별성, 혈연, 지연 학연의 편파성, 국경과 피부, 언어 등의 이유로 인한 참

여 제한 등을 극복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 공동체의 실험이 계속 해서 일어나야 한다. 인간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사회가 아니라 '인권존중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인간을 이윤획득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다.